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60

베드로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베드로전서

## 1 Peter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  
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4:12, 13)

*Ἀγαπητοί, μὴ ξενίζεσθε τῇ ἐν ὑμῖν πυρώσει πρὸς πειρασμὸν  
ὑμῖν γινομένη ὡς ξένου ὑμῖν συμβαίνοντος, ἀλλὰ καθὸ  
κοινωνεῖτε τοῖς τοῦ Χριστοῦ παθήμασιν χαίρετε, ἵνα καὶ  
ἐν τῇ ἀποκαλύψει τῆς δόξης αὐτοῦ χαρῆτε ἀγαλλιώμενοι.*

## 베드로전서 차례

---

베드로전서 서론.....	〈12제〉 ... 177
제 1 장 베드로가 흠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다 .....	〈19제〉 ... 182
제 2 장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 권고하다 .....	〈21제〉 ... 188
제 3 장 신자들의 생활 태도와 고난에 대한 권면 .....	〈20제〉 ... 195
제 4 장 신자들의 고난과 베드로의 격려 .....	〈17제〉 ... 202
제 5 장 마지막 권고와 작별 인사.....	〈12제〉 ... 209

## 베드로전서 특별 자료 차례

---

베드로전서 서론 〈연구 자료〉 예수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	181
제 1 장 〈본장의 요절〉 .....	187
제 2 장 〈화보 자료〉 순교당하는 베드로 .....	194
제 3 장 〈연구 자료〉 연옥(煉獄) .....	201
제 4 장 〈연구 자료〉 기독교의 물질관 .....	208

# 베드로전서 서론

## 1. ㉠ 본서신의 발신자(發信者)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1:1을 통해 발신자는 베드로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현대 비평학자들(Eichhorn, De Wette, Baur, Schwegler, Hilgenfeld)은 베드로가 발신자라는 사실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① 첫째, 본서신의 헬라이어 문체가 아람어를 사용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련되어 있다.  
 ② 둘째, 본서신의 몇몇 귀절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유사하다(2:6-8;3:1-7).  
 ③ 셋째, 본서신은 신자들의 박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에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증거를 다른 데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3) 그러나 이상의 반대설은 결정적인 사실이 못 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반증할 수 있다.  
 ① 첫째, 문체에 대한 의혹은 본서신 5:12에서 실루아노를 언급한 사실로 보아 베드로가 본서신의 내용을 말해 주고 그가 유창한 헬라이어 대필(對筆)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둘째, 바울의 사상을 많이 담고 있다는 문제는 대필자인 실루아노가 바울의 동역자(행 15:40;16:19)였음을 볼 때 어투나 문체에 있어 바울과 유사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③ 셋째, 박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박해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학살이었으며(막 13:9이하; 히 10:32이하) 또한 시기적으로도 박해 중이 아니라 임박한 박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4) 이와 같이 현대 비평학자들의 반대설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서신의 발신자는 1:1에 나타난 베드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 본서신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은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저자의 이름(1:1)과 베드로후서가 그의 두번째 편지(벧후 3:1)임에 근거하여 '베드로전서'로 불리운다.  
 (2) 이러한 명칭은 가장 오랫동안 권위를 지니고 있는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 서도 <페트로 알파>라고 되어 있으며 영어 흠정역(KJV)에도 '베드로의 첫 보통 서신'(The First General Epistle of Peter)으로 되어 있으므로 '베드로전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인가?

- ㉠ (1) 그는 벧새다 출신으로(요 1:44) 본명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시몬이었는데(요 1:41; 행 15:4) 후일 예수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반석이란 뜻을 지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다(마 16:13-18).  
 (2) 그의 부친은 요나(마 16:17) 또는 요한(요 1:42)으로 불리었으며 동생은 안드레였는데 후일 그들 형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여(마 8:14)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했다(마 4:18).  
 (3)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를 만났고(요 1:40-42) 주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마 4:19; 눅 5:10).  
 (4) 그 후 12사도에 뽑히게 되었고(마 10:2)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총애(寵愛)하는 3제자

중 하나가 되었으며(마 17:1-5; 26:56-75; 막 5:37) 결국은 예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의 인정을 받는 으뜸가는 제자가 되었다(마 16:13-17).

- (5) 한편 그는 예수께서 공회에서 고통받으실 때 그분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는데(마 26:56-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요 21:15-17)는 사명을 줌으로써 다시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셨다.
- (6) 훗날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를 창립하여 지도하였으며(행 2:14-41; 3:1-10) 사 마리아부터 시작하여 욥바, 가이사라, 안디옥을 순행(巡行)하며 복음을 전했으나(행 9:32-10:48; 11:1-18) 바울이 복음 전도에 각광을 받게 된 때부터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가 A. D. 68년경 네로(Nero, A. D. 54-68) 황제의 대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한다.

#### 4.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서두를 보면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임을 알 수 있다(1:1).
- (2) 이 다섯 지방은 소아시아로 불리우는데 '흩어진 나그네'는 결국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指稱)한다.
- (3) 그러나 좀더 엄밀히 수신자들을 파악해 보면 유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0; 4:3).
- (4) 따라서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 5. ㉡ 본서신이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신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아래 사실들을 통해서 기록 시기가 A. D. 64년경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2) 이러한 검증은 먼저 본서신의 기록지를 추적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본서신의 기록지는 바벨론으로 나타나 있는데(5:13) 여기에서 바벨론이란 상징적인 의미이며 이는 분명 바벨론 이상의 유세를 떨쳤던 로마 제국을 가리킴으로(참조, 제 17:18) 베드로가 바벨론 곧 로마에 도착한 시기인 A. D. 63년말부터 64년초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또한 본서신은 곧 다가올 박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바로 직후인 A. D. 64년경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 (4) 그러므로 본서신의 기록시기는 A. D. 64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6. ㉢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5:13에 '바벨론'으로 나와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지명인 '바벨론'에 대해서는 논란(論亂)이 많다.
- (3) 먼저, 중세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칼빈(Calvin) 등의 학자들은 유브라데 강 유역의 바벨론에서 본서신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 D. 41년경 칼리굴라(Caligula) 황제의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산산이 흩어졌으므로 본서신이 그곳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또한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는 기록도 없다.
- (4) 다른 관점에서 혹자(Bishop Pearson)는 이집트의 카이로 근방에 있었던 앓시리아인들의 정착촌이 바벨론으로 불리워졌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곳을 본서신의 기록 장소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군사 요새지였던 그곳에 베드로가 머물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5) 마지막으로 오리겐(Origen), 터툴리안(Tertullian) 등의 학자들은 바벨론을 로마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 ① 먼저, 본서신의 기록 연대가 A. D. 64년경이며 베드로가 이때에 로마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일치하므로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② 뿐만 아니라 더 유력한 증거는 성경의 묵시 문학에서 보면 실제명(實際名)이 아닌 상징적인 이름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계 17:18).

(6)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로마임을 알 수 있다.

7. ㉠ 본서신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신은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이 곧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을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 (2) 이 서신을 통하여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소망을 제시해 줌으로써 고난과 시험에 약해지지 않고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촉구(促求)하였다.

8. ㉠ 본서신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 (1) 첫째, 본서신은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한 서신이므로 ‘격려의 서신’(Epistle of Courage) 또는 ‘소망의 서신’(Epistle of Hope)이라고 불리운다.
- (2) 둘째, 본서신은 ‘삼위일체론’(1:2, 3, 12;2:23), ‘창조론’(4:19), ‘그리스도론’(1:20;3:18), ‘속죄론’(2:18, 24;3:18, 19), ‘종말론’(1:13;5:1, 10) 등 여러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교리서이다.
- (3) 셋째, 본서신은 구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구약의 역사와 예언이 강조되어 있으며(1:10-12;3:5, 6, 20) 구약의 진리들이 예수의 교훈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1:15, 16;2:6, 23, 24).
- (4) 마지막으로 본서신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말씀과의 유사성으로서 특히 로마서, 에베소서, 야고보서의 문체 및 내용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통 부분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본서신 구분	로 마 서	에베소서	야 고 보 서	비교(유사점)
1:1, 2			1:1	인사말
1:3		1:3		하나님을 찬송함
1:6, 7	2:7, 10		1:23	인내하는 믿음
1:14	12:2	2:2, 3		세상과 구별된 삶
1:17	2:6			행위대로 심판하심
1:20	16:26			하나님의 영원성
1:21	10:9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1:23			1:18	말씀으로 거듭남
1:24			1:10, 11	인간의 한계성
2:5	12:1			거룩한 산 제사
2:6-8	9:33			시온의 걸립들
2:10	9:25, 26			하나님의 백성이 됨
2:13, 14	13:1-4			인간의 법에 대한 순종
2:18		6:5		주인에 대한 순종
2:24	6:11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3:8		4:32		형제에 대한 용서와 사랑
3:9	12:17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

3:21, 22	6:4	1:20		예수의 부활
4:1	13:14			그리스도의 웃음 입음
4:3	13:13			육신을 좇는 생활
4:8			5:20	죄를 덮어 주는 것
4:9	12:13			손님의 대접
4:10, 11	12:6, 7			은혜, 은사, 봉사
4:13	8:17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5:1	8:18			고난
5:5	4:6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
5:6	4:10			겸손

9. ㉠ 본서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의 문학 형식은 일종의 서간문(書簡文)으로서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따라서 본서신은 일반 서간문의 형태인 인사말(1:1, 2), 본내용(1:3-5:10), 기원과 끝 인사(5:12-14)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3)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 본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일반 서신에 속하는데 다른 일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문체가 미려하고 어투 또한 정답고 사랑스러우므로 오늘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서신 중의 하나이다.

10. ㉠ 본서신의 내용을 구분하라.

- ㉠ (1) 본서신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 첫째 부분은 인사말(1:1, 2)로서 사도 베드로가 '홀어진 나그네'에게 문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둘째 부분은 편지 내용으로서(1:3-5:11) 곧 다가올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 주고(1:3-12) 있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1:13-5:11).  
 (4) 마지막은 기원과 끝인사(5:12-14)로서 간단한 부탁의 말과 함께 평강을 기원하면서 끝을 맺었다.

11.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인사말 / 1:1, 2  
 (2) 하나님의 구원 계획 / 1:3-12  
     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 1:3-9  
     ② 구원의 예언 / 1:10-12  
 (3) 구원받은 자의 생활 양식 / 1:13-25  
     ① 소망과 경건의 생활 / 1:13-16  
     ②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 1:17-21  
     ③ 사랑의 생활 / 1:22-25  
 (4) 구원받은 자의 성장 / 2:1-10  
     ① 순수한 것을 통한 성장 / 2:1-3  
     ② 성전을 세우는 일과 제사장직에의 참여 / 2:4-10  
 (5) 신자의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 / 2:11-3:12  
     ① 선한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 / 2:11, 12  
     ② 인간이 세운 제도에서의 순종 / 2:13-17  
     ③ 주인에 대한 사환의 순종 / 2:18-25

- ④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 3:1-6
- 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 3:7
- ⑥ 의로운 삶으로의 부르심 / 3:8-12
- (6)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박해 / 3:13-5:11
  - ① 의를 위해 받는 고난 / 3:13-17
  - ② 그리스도의 고난 / 3:18-22
  - ③ 옛 생활의 종결 / 4:1-6
  - ④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 4:7-11
  - ⑤ 고난 중에서의 위로 / 4:12-19
  - ⑥ 고난받는 목자의 양 떼 / 5:1-4
  - ⑦ 고난 중에서의 겸손과 근신 / 5:5-11
- (7) 끝맺는 말 / 5:12-14

## 12. ㉠ 본서신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4:12, 13).

### 연구자료

예수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 본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성격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해선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다(마14:28; 눅22:33). 이 같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인근 지역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회의에 있어서 친히 의장역을 맡았다(행1:15-26). 그리고 예루살렘과 룻다, 옴바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각종 이적을 행하였다(행2:14-42; 9:32-43). 그렇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여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적 사고 방식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배타적이었다. 이러한 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신 예수의 선교 명령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게 된 것은 옴바에서 본 환상 때문이었다(행10:9-48). 그리하여 이 같은 깨달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옹호하였다(행11:1-18; 15:6-11). 그런데 성경은 이 일 이후의 베드로 행적에 관하여선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그를 책망하였었다는 언급(갈2:11)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이 일, 이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당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활동한 것 같다. 한편 베드로는 최후에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참조, 요21:18, 19) 그는 말년에 로마로 가 거기서 네로(Nero, A. D. 54-68)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 순교당한 듯하다(67, 68년경).



# 제 1 장 베드로가 흠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다

단락구분 1-2 베드로가 문안하다 / 3-5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산 소망이시다 / 6-9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다 / 10-12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 / 13-22 성도의 거룩한 생활 / 23-25 말씀의 영원성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

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 의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게되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아니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은 사도 베드로가 '흠어진 나그네' (1절)들에게 보낸 편지의 앞 부분으로서 앞으로 다쳐 올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먼저 베드로는 본장을 통해 시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3-10절) 또한 시련 중에 가져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한 자세로 거룩한 삶(11-25절)을 제시하고 있다.
- (3) 그런데 베드로의 권고는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서 특히 현대 문명 속에서 표류하는 영적 실향민인 우리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권면이며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 (4) 따라서 우리들은 본장을 통한 베드로의 권면에 귀기울여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시민에게(참조, 엡2:19; 빌3:20) 요구되는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3-17, 22절).

## 2. ㉠ '흠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指稱)하는가? (1, 2절)

- ㉠ (1)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흠어진 나그네' 들이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소아시아에 산재(散在)해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 (2) 여기에서 '흠어진 자' 들을 일컫는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본국인 팔레스틴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요7:35).
- (3) 또한 '나그네' 들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로이키아>는 외국인 혹은 일시적인 거주자란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 (4) 따라서 '흠어진 나그네' 들이란 그들의 본국인 팔레스틴을 떠나 소아시아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 신자들을 가리킨다.
- (5) 그런데 본절에서 '흠어진 나그네'는 단순히 집을 떠나 있는 나그네라기 보다는 천국을 본향으로 하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여기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 (6) 이처럼 우리들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깨닫고(참조, 요14:3) 귀향(歸鄉)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 3. ㉠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2절)

- ㉠ (1)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다.
- (2) 여기에서 '미리 아심' (2절)이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히 아신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 (3)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참조, 20절; 암3:2; 행2:23; 롬8:29, 30; 11:2),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통치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뜻한다.
- (4)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미리 아심'으로 선택받았으므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엡1:14).

## 4. ㉠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본서신을 받게 될 수신자들을 가리킨다.
- (2)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그 당시 흠어져 있던 신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까지 포함한다.
- (3) 그런데 구약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정적으로 가리켰으나 여기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참조, 2:9, 10).
- (4)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 또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에서 본서신의 수신자들임을 알 수 있다.
- (5)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본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베드로의 권고를 마음에 새겨서(신6:6) 선택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계12:3).

## 5. ㉠ 베드로는 어떠한 의미로서 '산 소망'이라 했는가? (3절)

- (A) (1) 산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
  - (2) 이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롬10:9;14:9;고전15:4;엡1:20;살전4:14) ‘죽은’의 반대 의미로서 ‘산 소망’이라 했다.
  - (3) 따라서 산 소망의 초석(礎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요3:16;5:24;엡2:8).
- 6. C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A) (1)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3절).
  - (2) 둘째,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기업(基業)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다.
  - (3)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5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심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 후에 받을 축복을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살전5:16, 18).
- 7. C 거듭난 자, 즉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4, 5절)
  - (A) (1)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基業)’을 받는다(4절).
  - (2) 여기에서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로서 상속자가 물려받는 선조의 재산을 뜻한다.
  - (3) 한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려 준 기업은 주로 가나안 땅을(출6:8;레14:34;신4:21;시136:21;렘3:18) 가리켰으나 신약에 와서는 장차 올 하늘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릴 희망을 뜻하고 있다(참조, 마5:5;고전15:10;히9:15).
  - (4) 그런데 본절에서 ‘기업’은 나그네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의 기업인 ‘은혜’(갈3:18)를 가리킨다.
  - (5)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산 소망을 가진, 즉 거듭난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 8. C 우리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A) (1) 믿음의 결국(結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 (2) 이 말은 영혼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의혹(疑惑)을 품을 때가 있다.
  - (4) 이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다(요20:29).
  - (5) 우리들은 비록 육안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음을 통해 예수를 사랑하고 이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 9. C 베드로는 10, 11절에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다고 했는가?
  - (A) (1) 그는 구약 선지자들이 믿는 자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 예언했다고 했다.
  - (2)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예언의 주체로서 메시아의 고난(사53장)과 영광(사

11장) 을 다루고 있다(10절; 눅24:26).

- (3)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 뿐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므로 예수께서 오실 날을 알기 위해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다(참조, 눅10:24).
- (4) 그러나 예언하는 힘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참조, 삼하23:2) 성령이시므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 (5) 이처럼 앞날에 관한 일은 인간의 의지로써는 모두 다 알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구원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 (6) 그런데 요즘 일부 교인들은 예언을 마치 점술(占術)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참다운 예언은 그리스도의 영(참조, 12절; 삼하23:2; 사61:1; 벰후1:21)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섭리임을 알아야 한다.

10. **㉠**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 천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2절)

- ㉠** (1) 천사들도 예언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했다.
- (2) 여기에서 '살펴보다'의 헬라어 <파라키토>는 '고개를 숙여 살펴다'라는 의미로서 보다 잘 보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다는 말이다(참조, 눅24:12; 요20:5, 11; 약1:25).
- (3) 그러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천사와 같은 하늘의 존재들도 인간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참조, 눅15:10; 엠3:10).
- (4) 우리들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 예언자들처럼 연구하고(10절) 천사들처럼 살펴볼 수 있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11. **㉠**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근신하라고 했는가? (13절)

- ㉠** (1)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다. 베드로가 적어도 이 같은 교훈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스승이자 구주이신 예수께서 보여 주신 십자가 사건 앞에서의 겸허한 자세로부터였다(참조, 요13:4).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한 '근신'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한편 '허리를 동이는 것'이란 민첩하게 활동하기 위해 동방의 전형적인 복식(腹飾)인 긴 옷에 주름을 잡아 허리띠를 묶는 습관을 마음에 적용시킨 표현이다.
- (3) 즉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바쁘게 스쳐 가는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에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마음의 무장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절제의 생활을 통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묶어야 한다(참조, 행14:25; 벰후1:5-7).

12. **㉠** 거룩함의 척도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베드로는 본절을 통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다(16절).
- (2)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한 자'(사43:15; 함1:12)는 하나님을 가리키므로(사30:15) 거룩함의 표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 (3) 한편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레10:10; 11:45; 살전4:7).
- (4)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므로 자칫하면 거룩한 생활(참조, 3:11)에서 떠나기 쉽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전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참조, 마5:48).
- (5) 이와 같이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그분의 영광에 합당할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한다(레11:45; 19:2; 20:7; 대상19:26).

13. **㉠**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라 권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즉 공의(公義)의 하나님(참조, 신10:17; 대하19:7; 욥34:19)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 (2) 이러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도록(사43:26; 말4:2; 행10:35; 롬6:13; 엡4:24; 5:9; 6:14) 명령하시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갈 길이 멀고 또한 바쁘기 때문에 간혹 피곤할 때면 육체적인 안락(安樂)에 유혹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때 죄짓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 (3)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세상의 자녀들과는 달리 세상의 정욕을 본받지 말고(14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별(聖別)된 생활을 해야 한다(레20:26; 수3:5; 대하29:5; 벧후3:11).

14. ⓐ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18, 19절)

- Ⓐ (1)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벗어날 수 있다.
- (2) 여기에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은 구약 시대의 제사 때 제물로서 선택되는 정결한 양을 말한다(레4:32; 22:17-25; 히9:14).
- (3) 이처럼 흠 없고 정결한 짐승이 속죄 제물로 사용된 이유는 이것들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되며 그런 점에서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레22:20).
- (4)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원래 죄없으신 분(히4:15)이었기에 우리 죄를 대속(代贖)하는 희생 제물로 선택될 수 있었다.
- (5) 이와 같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 제물로 삼으실 만큼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참조, 마19:19; 고전16:14; 갈5:13; 살전3:12; 요일4:18).

15. ⓐ '창세 전부터' 제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은 무엇을 뜻하는가? (20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요17:5, 24) 이미 속죄 제물로 예정해 놓으셨음을 가리킨다.
- (2) 여기에서 '창세 전'이란(마13:35; 엡1:4)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시기 전이란 의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것이라는 것을 예지(豫知)하시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속자로 예비해 두셨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세에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18, 19절; 시130:8; 마20:28; 막10:45; 딤후2:14).

16. ⓐ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22절)

- Ⓐ (1)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므로 결국 이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성경은 '정결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참조, 롬10:10; 살후1:8).
- (4)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 진리로 인해 깨끗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엡2:2; 5:6; 살후1:8).
- (5) 우리는 이와 같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 생활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삼상15:22; 렘7:23)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17. ⓐ 베드로는 영혼이 깨끗해진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는가? (22절)

- Ⓐ (1)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다(22절).

- (2) 이는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말이다.
- (3) 한편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마 19:19; 22:39; 막 12:31, 33; 눅 10:27; 롬 13:9; 갈 5:14; 약 2:8) 아가페적인 사랑을 일컫는다. 즉 신자들이 갖게 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자기 희생이다(참조, 요일 3:14-18).
- (4)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요 12:24) 자신을 희생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18. **㉠** 성도들의 거듭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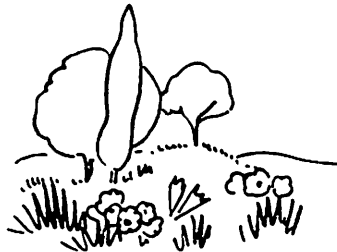
- ㉠** (1)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씨앗'을 통해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
- (2) 여기에서 씨앗은 '말씀'(눅 8:11)을 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을 씨앗과 같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말이다.
- (3) 한편 썩어 없어질 씨앗은 땅 속에 묻히면 그대로 죽어 버리지만 '썩지 아니할 씨앗'은 비록 그 형체는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배태하는 씨앗처럼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은 견지(見地)에서 베드로는 거듭남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 (5) 그러므로 '썩지 않을 씨앗'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구원의 산 소망(13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19. **㉠** 베드로는 인간과 인간의 영광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24, 25절)

- ㉠** (1) 베드로는 인간의 무상(無常)함을 지적하기 위해 사 40:6-8을 인용하고 있다.
- (2) 한편 여기에서 '풀'은 1년생 혹은 다년생(多年生) 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
- (3) 인간을 이와 같은 '풀'에 비유한 것은 풀처럼 약하고 생명력이 길지 못한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 (4) 더불어 인간의 영광 또한 금방 시들어 버리는 '풀의 꽃'처럼 일시적임을 지적하였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풀처럼 곧 시들어 죽어 버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한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풀과 같이 시들 육체에만 전념치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마 4:4; 요 6:63; 행 5:20; 빌 2:16)인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신 8:3; 욥 23:12).

본장의 요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4절).



## 제 2장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 권고하다

단락구분 1-3 갓난아이처럼 되기를 권고하다 / 4-8 교회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 9-10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 11-12 성도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 13-17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기를 부탁하다 / 18-20 주인에 대한 사환의 순종 / 21-25 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8 사환들이 법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23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에 이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 (2) 본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권고는 선택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태도에 대한 언급으로서 사회 제도에 대한 태도(13-17절)와 섬기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18-25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 (3)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들은 특히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행동 지표(指標)를 찾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행동 양식(樣式)에 대해 많은 시사점(示唆點)을 준다.

2. ⓐ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버려야 하는가? (1절)

- Ⓐ (1) 거듭난 사람들은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하고 타인을 기만, 시기,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버려야 한다.
- (2)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거듭나기 전의 옛 사람이 가졌던 생활 태도를 가리킨다.
- (3) 거듭난 성도들은 옛 사람이 행하던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롬 13:14;엡 4:22, 24;골 3:8, 10).

3. ⓐ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가? (2절)

- Ⓐ (1)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가능하다.
- (2) 여기에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 (3) 즉 거듭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은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전 3:2; 히 5:12).
- (4)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젖을 먹으므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수 1:8; 시 1:2; 119:97).

4. ⓐ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3절)

- Ⓐ (1) '말씀의 젖'을 먹여 주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 (2) 한편 어머니의 젖을 빨아 본 갓난아이들이 다시 그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의 젖을 맛본 거듭난 성도들은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 (3) 이러한 말씀의 젖은 다른 것과 달라 싫증나지 않고 거듭 사모하게 되는데 그 맛이 송이꿀처럼 달기 때문이요(시 19:10; 잠 24:13), 영혼의 목마름을 씻어 주는 생명수(계 21:6)이기 때문이다.

5. ⓐ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가? (4, 5절)

- Ⓐ (1) 첫째,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 돌, 즉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다(4절).
- (2) 둘째, 예수께로 나아온 자는 산 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5절).
- (3) 세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神靈)한 제사(祭祀)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5절).
- (4)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갓난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더욱 성숙하듯이 우리들도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더욱 몸과 마음이 장성할 수 있다(참조, 눅 2:52).
- (5)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 균형 잡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창 49:1; 시 35:15; 마 18:20; 고전 5:4).

6. ⓐ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모퉁이 돌’이란 옛 중동 지방에서 건축을 할 때 초석(礎石)으로 쓰이는 큰 돌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마 21:42), ‘생명수의 반석’ (고전 10:4), ‘산 돌’ (4절), ‘부딪히는 돌’ (7절) 등과 같이 흔히 ‘돌’로 비유되고 있다.
- (3) 한편 본절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므로(참조, 시 110:1, 2; 히 4:14, 16; 12:22-24) ‘시온의 모퉁이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의 기초로서 예루살렘에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마 7:24, 25).

7. Ⓞ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와 불신자에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7, 8절)

- Ⓐ (1)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서 그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한 영광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누구나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다.
- (2) 한편 믿지 않는 자에게 ‘모퉁이 돌’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한갓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오히려 ‘부딪치고 거치는’ 거추장스런 돌이 된 것이다.
- (3)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후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막 12:10), 예수께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모퉁이 돌’은 믿음의 반석이 되어 우리의 길을 행통하게 하지만(참조, 시 1:3)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로서 그들을 다치게 하는 울무가 된다(참조, 사 8:14; 마 21:44; 눅 20:18).

8. Ⓞ 베드로는 9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있는가?

- Ⓐ (1) 먼저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므로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사 43:20)이라 불렀다.
- (2)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으므로 ‘왕 같은 제사장’ (출 19:6; 계 1:6; 5:10)이라 칭하고 있다.
- (3) 또한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 (출 19:6)라고 했는데 이는 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성별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나 여기에서는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 (4)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 (출 19:5; 신 7:6; 말 3:17)이라 했는데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어떤 세력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지체이므로(고전 12:12, 27; 엡 5:30)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레 10:10; 11:45; 살전 4:7).

9. Ⓞ 성도들의 구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9절)

- Ⓐ (1)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 (2) 여기에서 ‘어두움’ (헬, 스코토스)이란 무지와 우상 숭배(엡 5:8; 골 1:3) 등 옛 사람이 추구했던, 육신의 사욕(私慾)을 따르는(1:14) 생활을 의미한다.
- (3) 반면에 ‘빛’ (헬, 포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1:5; 8:12)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상태, 즉 구원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4) 이러한 섭리에 따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 (눅 16:8; 엡 5:8; 살전 5:5)로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참조, 마 5:14, 16; 요 8:12; 행 13:47)

; 롬 13:12; 요일 1:7; 2:10).

10. **㉠** 베드로는 신자들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0절)

- ㉠** (1)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긍휼(矜恤)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 (2) 이 귀절은 베드로가 호 2:23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지만 본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살던 이방인들의 회심을 의미한다(롬9:25-33).
- (3) 이러한 버림 받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산 돌이신 예수 앞에 나아오으로써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 (4)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변화되기 전의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11. **㉠**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11, 12절)

- ㉠** (1) 첫째, 개인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서 신자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制馭)하라고 했다. 여기서 '영혼을 거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인격(판단, 가치관 등을 포함)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 말은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을 정면 거부하는 성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 그러므로 영혼이 육체의 요구에 따를 때 언제나 그것은 파멸로 떨어지게 마련이다(참조, 눅 21:34; 롬 6:6; 13:14; 고전 9:27; 갈 5:16; 골 3:5).
- (3) 둘째, 사회 생활에 대한 권고로서 신자들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첫번째 교훈이 내적인 것이라면 이번의 교훈은 외적(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
- (4) 이는 신자들 역시 사회를 떠나 살 수는 없으므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 (5) 신앙 생활을 빙자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에게 욕을 들리는 자로서 바른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삼고 자신의 현실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참조, 마5:16).
- (6) 한편 여기서 '권고하시는 날'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때를 가리킨다(참조, 눅19:44).
- (7) 일부 신자들 중에 믿음의 생활은 강조하면서 자신의 개인 및 사회 생활은 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자신의 생활 태도가 타인들의 모범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12절).

12. **㉠** 인간이 세운 제도에 복종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3-17절)

- ㉠** (1)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 (2) 그 당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던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거나 국가에 반항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취했다. 사실 성도는 무정부주의자도, 절대 아부자도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 (3)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박해를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켜 나가도록 위로하며 한편으로는 신자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들의 삶에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
- (4) 이러한 권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 22:17-22)라고 하신 예수의 교훈과 '위

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롬 13:1-7)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 (5) 그런데 성도들은 이땅의 질서에 대한 맹목적 복종보다는 그 질서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법에 순복해야 한다. 만일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참조, 행4:19;5:29). 사실 성도들은 국가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함으로 국가에 대한 최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

13. **㉠**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 (1) '어리석은 사람'은 성도들에 대해서 악행(惡行)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2)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여 무지(無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참조, 롬 10:3;엡 4:18) 사람을 말한다.
- (3) 이방인들은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했으며(시 14:1;36:1;53:1)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지로(행 3:17) 메시아를 못박아 죽였다.
- (4) 이렇게 무지한 자들의 비방을 막는 방법은 오직 선행으로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길밖에 없다. 악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악에 대한 악으로의 항거보다는 선을 통한 대항이다(참조, 롬12:21).

14. **㉠** 베드로는 신자들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6절)

- ㉠** (1) 신자들은 자유인답게 살되 그 자유를 남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 (2)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온갖 악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새로운 남편으로 맞아들여(롬 7:4)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한편으로는 제한된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즉 율법에서의 해방은 은혜로의 구속(拘束)을 의미한다.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억지에 의한 복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로 신앙 생활해야 한다.
- (3)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갈5:13).

15. **㉠**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17절)

- ㉠** (1) 먼저 성도는 불신자, 원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 (2) 둘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 사이에는 더욱더 돈독(敦篤)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 (3) 셋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敬畏)로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므로 신뢰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참조, 잠24:21).
- (4) 마지막으로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공경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주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심으로 교훈하셨다(참조, 마 22:21; 막 12:17; 눅 20:25; 롬 13:7).

16. **㉠** 사환(使喚)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는가? (18절)

- ㉠** (1) 법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順服)하라고 했다.
- (2) 여기에서 '법사에'라는 말은 '전적으로'라는 뜻이며 '두려워함'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1:17;2:7;3:2, 15)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사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1:17)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매사에 하나님 의식을 지녀야 할 것을 강조한 교훈이다.
- (4) 노사 분규가 많은 오늘날 이와 같이 매사에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피고용자는 고용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한다.

17. **㉠** ‘사환’은 그 당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18절)

- ㉠** (1) ‘사환’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隸屬)되어 있는 노예(헬, 들로스)와는 달리 잡무(雜務)를 담당하는 고용된 하인(헬, 오이케테스)을 말한다.
- (2) 이들은 주로 개인의 가정에 고용되어 가사를 돌보는 사람들로써 재봉사, 요리사, 가정 교사 등과 같은 전문인도 있었다.
- (3) 이러한 사회에 대한 언급은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보여 준다(참조, 고전 7:21-23; 엡 6:5-8; 골 3:22; 딤후 6:1, 2).
- (4) 이와 같이 사환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비록 미천(微賤)한 대우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같이(요 1:12; 갈 3:26; 요일 5:1) 그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참조, 갈 3:28).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존귀한 인격체이다.

18. **㉠**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사환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19, 20절)

- ㉠** (1) 베드로는 그들에게 비록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했다(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정의를 좇고 옳은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 (2)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롭게 보시고 그의 고난을 인정하시며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3) 우리 인간은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를 참고 선을 행하기란 무척 힘들다.
- (4)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책무를 다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19. **㉠** 종들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21절)

- ㉠** (1) 종들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고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고난은 우리가 생애적으로 지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참조, 계 14:4).
- (2) 그런데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참조, 3:9). 즉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에 불과하다.
- (3) 따라서 종 곧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신자들의 영광인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빌 3:12-14; 롬 8:30).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이 끝난 후 받을 영광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열심이 필요하다(히 12:2).

20. **㉠**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22절)

- ㉠** (1) 첫째,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눅 23:34).
- (2) 둘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威脅)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협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셨던 것이다(참조, 1:11; 3:18; 사 53:5; 히 2:10).
- (3) 셋째, 위협을 받으실 때에 공의(公義)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참조, 눅 23:26-46).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원수를 심판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참조, 롬 12:17-21).
- (5)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를 오히려 사랑하고(마 5:44; 눅 6:27)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5:7; 시 37:5; 55:22; 잠 16:3).

21. **㉠** 본장 22-25절은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유사한데 이들의 공통 부분을 찾아 비교 설명해 보라.

- ㉡** (1) 베드로는 죄없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복종을 강조하기 위해 사 53장을 인용하였다.  
 (2) 따라서 본장 22-25절은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비슷한데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장	구분	이사야서	기 타	비교(공 통 점)
22절		53:9	고후 5:21; 히 4:15; 요일 3:5	예수의 무죄(無罪) 하심
23절		53:7	막 14:15; 15:17-20; 눅 23:34, 46	육과 고난을 당하심
24a절		53:11b 53:12b	시 21:23; 행 5:30; 10:39; 갈 3:13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심
24b절		53:5	마 8:17; 히 9:28	예수의 회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음
25절		53: 6	속 13:7; 마 9:36; 18:12; 막 6:34; 눅 1:54	죄인들의 회개

화보자료

순교당하는 베드로. 겐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15세기의 화가인 제임 코게가 그린 그림이다.



초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당하였다 한다. 이에 대한 역사성은 불확실하나 베드로가 순교당하리라는 사실 만큼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요21:18, 19). 아 물론 그는 죽기까지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겼으니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1)라 칭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이다.

# 제 3 장 신자들의 생활 태도와

## 고난에 대한 권면

단락구분 1-7 부부의 윤리에 대해 말하다 / 8-12 신자의 생활 원리 / 13-17 선과 의롭 위한 고난 / 18-22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1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3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7 남편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주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롭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나니라

18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저가 또한 영으로 욕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구분해 보라.

㉠ (1)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2:13부터 시작되고 있는 기독교

인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지켜야 할 책임(1-7절)과 신자의 생활 원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8-12절).

- (2) 둘째 부분은 신자들이 받을 고난과 박해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고난 중에 신자로서 지킬 도리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 (3) 베드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의 미덕을 보인 사라와 노아의 교훈을 통해(6, 20절) 권면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4) 그런데 우리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신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온전한 인간으로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순종과 선행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마20:28; 롬8:3; 5:19; 빌2:7, 8; 히5:8).

2. **Q**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내의 자격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5절)

- A** (1) 첫째,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1절).
- (2) 둘째,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2절).
- (3) 셋째, 겉 치장보다는 은유하고 정숙한 내적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3-5절).

3. **Q**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는가? (1절)

- A** (1)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는 앞 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2:18)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리킨다.
- (2) 그 당시 유대의 율법이나 헬라법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서 집안에 살면서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무였다.
- (3)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갈3:28)는 진리가 전제되므로 기독교로 개종(改宗)한 여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베드로는 ‘순종’의 미덕을 강조했다.
- (4) 그러나 베드로는 여인에게 일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1:7을 통해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도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5) 따라서 신자로서 아내의 순종은 일방적인 굴종(屈從)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다(참조, 엡5:22; 골3:18, 19; 딤후전2:9-15).

4. **Q** 신자로서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1, 2절)

- A** (1) ‘말로 말미암지 말고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다.
- (2) 여기에서 ‘말로 말미암지 말고’는 구원을 얻는데 말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이나 설교를 함으로써 남편과의 불화를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 (3) 따라서 신자인 아내는 불신자인 남편에게 말보다는 순결한 가정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2절) 모범을 보임으로써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 (4)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은 말과 혀보다는 진실과 행함으로써 불신 이웃에게 신앙과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요일3:18). 행함이 없는 종교, 도덕, 지성은 아무런 감화력이 없다(참조, 약2:26).

5. **Q** 베드로는 아내의 단장(丹粧)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 4절)

- A** (1)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은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했다.
- (2) 이 귀절은 신실한 신자로서 아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참조, 삼상16:7; 요7:24; 고후10:7; 약2:1).
- (3) 그런데 이 귀절을 잘못 이해한 신자들은 외적인 단장을 절대 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

각해 왔다. 즉 외모의 화려함은 곧 죄성(罪性)의 표현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 (4) 그러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외적인 단장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와 말씀이 요구하는 적절한 생활 태도에 관한 인식임을 알아야 한다.
- (5) 따라서 아내된 신자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에 모든 정열을 쏟기 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마10:16; 롬8:4-6; 고전5:5).

6. **㉠** '단장'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 말은 무엇인가? (4절)

- ㉠** (1) '마음에 숨은 사람'은 3절의 '단장'과 대조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2)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로서 인간의 육체적인 외양(外樣)을 뜻하는 '단장'(헬, 코스모스)과는 대조된 내적 인간(롬7:22; 고후4:16; 엡3:16; 4:22, 24)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속 사람'(롬7:22), '새 사람'(엡4:24)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 (4)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숨은 사람을 정숙하고 은유한 마음으로 장식하라는 베드로의 가르침과 같이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인격이 따르지 못하는 화려한 외모는 마치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 같은 꼴이다(참조, 잠11:22).

7. **㉠** 베드로는 '거룩한 여인'의 대표로 누구를 들고 있는가? (6절)

- ㉠** (1) 베드로는 거룩한 여인의 모범으로 '사라'를 들고 있다.
- (2) 사라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lord)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순종했다(창18:12). 이는 맹종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부부 관계를 지켜나간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인격적 굴욕을 감수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설정하실 때 각각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직능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다(참조, 창2:18-25; 3:16).
- (3) 사라는 이처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므로 '열국의 어미'(창17:16)가 되는 영광까지 받게 되었다.
- (4) 사라의 딸이 된(6절) 모든 여신자들은 사라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룩한 여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8. **㉠** 아내에게 지켜야 할 남편의 의무는 무엇인가? (7절)

- ㉠** (1) 첫째,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同居)'함으로써 아내의 요구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원목적에 대한 종교적 지혜를 깨닫고 아내를 맞아야 한다.
- (2) 둘째,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과 같아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쉬우므로 항상 은유하게 대해야 한다. 즉 인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격적, 육체적 손상을 받기 쉬우나 그 중에서도 여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 (3) 셋째, 여자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므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즉 부부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함께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영원한 동반자로서 생활해야 한다.
- (4) 그런데 베드로의 권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일부 남편들은 자신들의 의무는 무시한 채 아내에게 일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예가 흔히 있다.
- (5) 그러나 아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이므로(참조, 갈3:28) 하나님을 믿는 신자 부부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9. **㉠**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공동체적인 의무는 어떤 것인가? (8, 9절)



- A** (1)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적 의무는 다섯 가지인데 이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할 규범적인 덕목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2) 첫째, ‘체휼(體恤)하라’고 했다. 이 말은 남을 동정한다는 뜻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롬12:15; 고전12:26; 히4:15).
- (3) 둘째,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다. 여기에 ‘형제’는 영적으로 거듭남으로써 한 형제가 된 자들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영적으로 더욱 친밀해야 함을 가리킨다(살전4:9, 10).
- (4) 셋째,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
- (5) 네째, ‘겸손’하라고 했다. 겸손은 하나님과 형제를 대할 때 가지는 겸허(謙虛)한 마음으로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잠29:23; 눅14:11; 요13:14; 빌2:6-11).
- (6)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다. 이 덕목은 구체적으로 박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마5:44; 눅6:27) 기독교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참조, 롬12:21).
- (7) 이상(以上) 다섯 가지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실천적 교훈이므로 오직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이러한 교훈을 생활화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은 지체(肢體)가 될 수 있다(롬12:4, 5; 고전12:12, 20, 25; 엡4:25, 27).

**10. C**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A** (1)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은(1:1, 2, 3, 18; 2:9, 21) 본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라는 귀절은 2:21의 내용과 반복된다.
- (2) 그런데 2:21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반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9절) 고난을 참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한편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행할 때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害)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마6:12, 14, 15; 8:32-35; 막11:25, 26).

**11. C**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11절)

- A** (1) 지상에서의 삶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내세에서의 구원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현세의 삶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 (2) 첫째, ‘혀를 금(禁)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詭譎)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간사한 말이나 독설(毒舌)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해서 현세의 인간 관계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 (3) 둘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철저히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상태를 가리킨다.
- (4) 셋째,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야 하는데 화평한 자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마5:9). 이것은 현실에 순응하는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를 회구하는 열정적인 삶의 태도이다. 이 화평을 위해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12. **㉠** 베드로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2절)

- ㉠** (1)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섭리에 따라 보살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출2:25). 결국 '주의 눈'은 성도의 절대 안전에 대한 증표이다.
- (2) '주의 귀'는 기도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간구를 듣기 위해 항상 우리를 향해 기울이고 계신다(참조, 출3:7). 이는 당신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3)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의 표정으로 지켜 보신다. '주의 낮'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참조, 욥1:3).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는 분(출5:21; 대상28:9; 29:17; 욥7:20; 시33:15; 66:7; 살전2:4; 히4:12)이시므로 항시 언행을 삼가하며 절대 안전을 허락하고 그분께 영광돌려야 한다.

13. **㉠**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전혀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인가? (13절)

- ㉠** (1) 본절에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귀절이 뜻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 (3) 이는 박해자들이 비록 우리들의 육체는 상하게 할지라도(눅12:4)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근본적인 해는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50:9; 롬8:31, 35).
- (4)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그 대가가 없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참조, 고전15:58; 갈6:9; 살후3:13; 히12:3, 5)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거두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신다(마10:22; 히10:36).

14. **㉠**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복 있는 자'로 불러 주신다.
- (2) 그런데 산상 수훈(垂訓)에서 보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인간이 받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마5:10-12).
- (3) 이러한 '복 있는 자'들에게는 큰 상(賞)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5:12).
- (4) 그러므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천국의 열쇠(마16:19)임을 알고 고난에 대해 기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4:13, 14; 마5:2; 행5:41; 골1:24; 히11:26; 약1:2).

15. **㉠**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13-16절)

- ㉠** (1) 첫째, 박해자들이 험박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14절).
- (2) 둘째,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어야 한다(15절).
- (3) 셋째, 신자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16절).
- (4)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자들의 선행을 비방하던 박해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16. **㉠**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는 귀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17절)

- ㉠** (1) 이 귀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 (2)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시대적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까지도 역사하시며 오히려 신자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므로 그들을 축복하신다(참조, 4:13, 14; 골1:24).
- (4) 따라서 이 귀절은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참조, 5:1).

(5) 이러한 의미에서 악행(惡行)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고난받는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2:20).

17. **㉠**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8절)

- ㉠** (1)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대속적(代贖的) 의미를 가진다.
- (2) 둘째,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代身)' 하여 죽으셨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 (3) 셋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실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 (4)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 희생적 사랑,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구속사적(救贖史的)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18. **㉠**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는 귀절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19, 20절)

- ㉠** (1) 본귀절은 가장 논란이 심한 신학적 난제(難題)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 (2) 먼저 렌델 해리스(Rendel Harris), 모펠(Moffatt), 굿스피드(Goodspeed) 등의 학자들은 예수의 영이 음부에 갇혀 있는 범죄한 천사(창6:1-4; 벤험2:4, 5; 유1:6)들의 영에게 설교했다(위경 에녹서6:4이하; 12:1)고 주장하고 있다.
- (3) 이에 반(反)하여 빅(Bigg), 헌터(Hunter) 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의 영이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하여(창7:21-23) 음부에 갇혀 있는 영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4) 한편 제롬(Jerome), 어거스틴(Augustine), 아퀴나스(Aquinas) 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그 당시의 패역한 사람들(창6:12)을 전도하였으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20절; 벤험2:5)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했다고 한다. 여기서 '옥'이란 단순히 타락한 이 세상을 일컫는다.
- (5) 이러한 학설 중에는 전통적으로 제롬, 어거스틴 등의 학설이 가장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통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19, 20절; 1:10, 20; 벤험2:5)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6) 한편 이 난해 귀절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의 근거가 되었으며 아직도 신학자들간에는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 등 두 종류의 세계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 **㉠**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어떠한 의미에서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는가? (21절)

- ㉠** (1) 대홍수를 통해 살아 남은 사람은 노아의 여덟 식구로서(20절; 벤험2:5) 이들은 방주를 타고 물의 심판(창9:11, 15)에서 구원을 받았다.
- (2) 베드로는 이러한 노아의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마3:11, 13; 막1:9; 눅3:16, 21)의 원형으로 보았다.
- (3) 이것은 세례가 물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징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물'이란 씻음 곧 죄 씻음을 의미한다.
- (4) 그런데 혹자는 세례 예식을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정도로 간략하게 행하기 때문에 세례의 본래적 의미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 (5) 그러나 이러한 예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노아의 구원 사건을 상징적으로 재현하

는 것이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즉 세례는 죄에 속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출생한 자신이 살게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다.

20. ㉠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2절)

- ㉠ (1) 이것은 초인적인 강력한 힘을 지닌 세 가지의 영적 세력을 말한다(롬8:38; 고전15:24; 엡1:21; 골1:10; 2:10-15).
- (2) 구체적으로 이들은 선한 천사(엡3:16; 골1:16), 악한 천사(엡4:12), 혹은 구별 없이(참조, 롬8:38) 혼용(混用)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천사들의 특질 또는 이름이다.
- (3) 이들 중에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살아 제실 동안에는 그분을 괴롭히고 시험하기도 했다(마4:1-12).
- (4)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께 장악당하게 되었다.
- (5)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세력도 이와 같이 당분간은 그 기세가 충천(衝天)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출32:11; 느1:10) 앞에 무릎을 꿇게 되므로 우리 신자들은 권능자 앞에 이르는 날을 기다리며(참조, 막14:62)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눅21:19; 롬5:3; 살후1:4; 히10:36).

### 연구자료

연옥(煉獄).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 거하는 중간 처소로 연옥(purgatory)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곳은 순교자와 같은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성직자들조차 가서 거하게 되는 곳으로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고통과 연단을 받는 정화(淨化)의 장소라고 한다. 이곳에서 받는 고통의 정도와 그 기간은 사람이 지은 죄의 경중에 비례하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보상한 후에야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보상할 수 있는가? 연옥에 있는 자들은 그곳의 불꽃 중에서 고통을 당할 뿐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보상하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다만 지상에 있는 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그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missa)나 헌금, 각종 교회 봉사 등에 의해서만 그의 죄는 점점 보상되며 마침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화된다. 이 같은 연옥 교리는 그 기원을 따르 시온(Marcion)에게서부터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는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죽으신 후 연옥에 가서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여(19절)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였다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옥 사상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의 공로를 힘입음으로써만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러서 인간적 공로에 의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롬3:23-28).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상은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 제 4 장 신자들의 고난과 베드로의 격려

단락구분 1-6 고난을 통한 연단(鍊鍊) / 7-11 고난 중에 섬기는 태도 / 12-19 고난에 대한 격려의 말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옥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4 이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2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이다

### 1. ㉠ 본장에 언급된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3:13부터 시작되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2) 본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신자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신앙의 연단이므로(1-6절) 고난 중에서도 사랑으로 이웃에 대하여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7-11절).
- (3) 또한 신자들이 옛 생활을 버릴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12-19절)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딜 것을 촉구(促求)하고 있다.
- (4) 그런데 본장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은 이방인의 생활을 완전히 벗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5) 특히 초신자들이 옛 생활(욥22:15; 골3:9)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참조, 시51:10; 롬7:6; 12:2; 고후4:16; 엡4:23; 골3:10)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유혹의 손길은 상당히 거센 것이어서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쉽다.

(6) 이러한 때일수록 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시92:1; 눅18:11; 빌1:3).

## 2. ㉠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

- ㉠ (1) 첫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1절)고 했는데 이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와 희망을 가지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참조, 롬6:10-11; 빌3:10; 히12:2).
- (2) 둘째,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2절) 살아야 한다(1:14; 딤후2:12; 요일2:16).
- (3) 셋째,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宴樂)과 무법(無法)한 우상 숭배'(3절)를 하던 이방인의 생활을 버려야 한다(창35:2; 신31:16; 스6:21; 시81:9; 렘8:19).
- (4)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육신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이방인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을 견뎌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육체의 생활이 끝나면 장차 부활을 통해 영적 승리를 거둘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롬8:37; 고전15:57; 요일5:4).

## 3. ㉠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절)

- ㉠ (1) 우리들이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셨다는 데 있다.
- (2)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모든 신자들이 필수적으로 본받아야 할 교훈이다.
- (3)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시44:22; 롬8:36) 묵묵히 참고 견디었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4)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시143:10; 마7:21; 11:26; 26:42; 눅10:21; 엡6:6; 약4:15)으로 여기고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 4. ㉠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살던 이전의 행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절)

- ㉠ (1) 음란(헬, 아셀게이아) : 모든 종류의 성적인 무절제를 총칭하는 말이다.
- (2) 정욕(헬, 에피두미아) : 더러운 생각과 같은 숨겨진 죄로서 그 결과는 '음란'으로 향하게 된다.
- (3) 술취함(헬, 오이노플루기아) : 포도주란 뜻을 가진 <오이노스>와 끌어 올리다란 뜻인 <플루오>로 이루어진 고대 복합어로서 술에 만취함을 나타낸다.
- (4) 방탕(헬, 코모스) : 술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것 혹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치스러운 잔치를 의미한다.
- (5) 연락(헬, 포토스) : 술을 먹고 즐기는 연회를 의미하며 또한 술을 먹고 짐승같은 짓을 하는 사람의 행동도 포함된다.
- (6) 무법한 우상 숭배 : 우상 숭배는 그 자체만으로 큰 죄악이며 특히 음주와 음란이 섞인 우상 숭배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다(겔7:20; 왕상21:26; 롬2:22).

## 5. ㉠ '극한 방탕'은 어떠한 생활을 가리키는가? (4절)

- ㉠ (1) '극한'이란 말의 헬라어(아나퀴시스)는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다.
- (2) 그리고 '방탕'은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와 같이 허탕 방탕한 생활(눅15:13)을

뜻한다.

(3) 그러므로 '극한 방탕'의 생활은 사람이 자신을 방종에 내맡겨서 무절제하게 호색, 폭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 몸을 망치게 만든다.

(4) 이러한 유혹은 사회 생활,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으므로 신자들은 철저히 절제하는 신앙 및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행24:25; 고전7:5; 갈5:23; 딤펴전3:11; 딤펴후3:3).

6. **㉠**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라(2-16절).

**㉠**

구 분		사람의 정욕(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뜻
성 경 귀 절	본서신	1:14; 2:11; 4:2, 3	4:2
	기 타	잠 21:25; 욥 1:24; 13:14; 뱀후 1:4; 2:18; 3:3; 요일 2:16, 17; 유 1:16	시 40:8; 143:10; 마 6:10; 7:21; 12:50; 26:42; 요 5:30; 6:40; 7:17; 행 21:14; 롬 12:2; 엡 6:6; 살전 5:18; 히 12:31; 약 4:15; 요일 2:17
행 위		① 음 란(3절) ② 정 욕(〃) ③ 술취함(〃) ④ 방 탕(〃) ⑤ 연 락(〃) ⑥ 무법한 우상 숭배(〃) ⑦ 살 인(15절) ⑧ 도적질(〃) ⑨ 악행(〃) ⑩ 남의 일에 간섭함(〃)	①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1절) ②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7절) ③ 열심으로 사랑하라(8절) ④ 서로 대접하라(9절) ⑤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10절) 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13절) ⑦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16절)
결 과		① 나중에 심판받음 ② 멸망에 이입(시 1:6)	① 먼저 심판을 받음(17절) ② 겨우 구원을 받음(18절)

7. **㉠**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5, 6절)

**㉠** (1) 이 귀절이 뜻하는 바는 장차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요 5:22, 23)께서 오실 때에 살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까지(계 11:18)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삼상 2:10; 시 7:8; 사 66:16; 욥 3:12; 행 17:31; 딤펴후 4:1).

(2) 5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찍 죽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중에서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극한 방탕에 달음질한'(4절)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6절의 내용은 3:19처럼 극히 난해한 귀절로 취급되어 오늘날까지 설왕 설래(說往說來)하고 있다. 그런데 난해한 이 귀절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즉 여기서의 '죽은 자들'은 5절에서의 '죽은 자'와는 달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이 결정된 존재(참조, 엡 2:1). 다시 말하면 지금은 살아 있으나 머지않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연인을 일컫는다.

(5) 이런 자들에게 복음은 참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영'은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

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6) 이처럼 복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요일3:14)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 중 하나가 복음 전파 사역이다(참조, 계14:6).

8. **Q** '만물의 마지막'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가? (7절)

- A** (1)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 (사46:10;47:7;단9:27;합2:3)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신약에서 '종말' 혹은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시간을 가리킨다(참조, 행2:17;히1:1).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란 그런 의미보다는 말세의 마지막, 종말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가리킨다(참조, 벧후3:10).  
 (3) 그러나 그 최후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마24:36;눅12:40).  
 (4)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항상 '종말'을 의식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7, 8, 10절).

9. **Q** 베드로는 말세를 앞둔 신자들에게 어떤 생활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7-11절)

- A** (1) 기도의 생활: '만물의 때가 가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하라(7절) 고 했다(마26:41;눅21:36).  
 (2) 사랑의 생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 하라(8절;요일3:11, 23;4:7, 11, 12) 고 했는데 이는 허다한 죄를 덮어 주기 때문이다(참조, 약5:20).  
 (3) 대접하는 생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9절) 고 했는데(참조, 딤후3:2;딤후1:8;히13:2) 이러한 마음은 서로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될 수 있다(마7:12;눅6:31).  
 (4) 봉사의 생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해야 하며(10절)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자원은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5) 전도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한다(11절;막16:15;행1:8;골1:23). 결국 이것은 신자들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한 삶임을 알 수 있다(참조, 롬11:36).

10. **Q**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어떠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 (12절)

- A** (1)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너희를 시험(試鍊)하려고 오는 불 시험'이라고 표현했다.  
 (2) 여기에서 '불 시험'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불길처럼 뜨거울 것이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금을 불로 연단시키듯이(1:7;잠27:21;말3:2;계3:18) 기독교인의 신앙을 열화 같은 세상의 박해로써 연단시키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불 시험'이라기 보다는 '불로 시험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미상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어 나갈 때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제련(製鍊)된 순금처럼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참조, 사48:10;롬5:4;히5:14).

11. **Q**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A** (1)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맞아야 하는 핍박과 치욕 등을 의미한다(참조, 롬8:17;고후1:7;빌3:10;골1:24).



- (2) 이와 같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후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3절) 이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행5:41; 약1:2).
- (3)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고난 그 자체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것이다.
- (4) 결국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지만 이 고난을 극복한 후 얻는 것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적 기쁨인 것이다(참조, 사12:3; 35:10; 시30:5; 126:5; 합3:17, 18).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과정 없이 천국의 영광을 기대할 수는 없다.

12. **㉠** 베드로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복되다고 했는가? (14절)

- ㉠** (1)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이들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특성 중에 하나로서(행7:2; 엡1:17)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어진다(요1:14, 18).
- (3)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모든 신자 위에 계시므로 그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복된 것이다.
- (4) 한편 이러한 교훈에 대한 예증(例證)으로서 스테반의 순교를 들 수 있는데(행7:58-8:2)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았으나(행7:54-60)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으며(행6:5), 또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복된 사람이었다(행7:55).
- (5)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장차 영광을 받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13절)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인 동시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참조, 요14:16, 17).

13. **㉠** 베드로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가? (15절)

- ㉠** (1) 먼저 개인적 범죄인 ‘살인이나 도적질’ 한 사실로 인해 고난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한 죄악은 심계명에도 금하고 있는 중대한 죄악이다(막10:19; 고전6:10; 엡4:28).
- (2) 다음은 사회적 죄악인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 (3) 여기에서 ‘악행’ (2:12, 14)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쁜 행동이거나(참조, 3:16, 17) 세상 법에 저촉되는 죄악을 말한다.
- (4)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란 신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떠나 타인의 일에 쓸데없이 개입하여(참조, 눅12:13, 14; 살전4:11; 살후3:11)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 (5) 그런데 신자들이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죄의 대가(참조, 롬5:12; 6:23)일 뿐이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신자들은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의 결과는 사망이지만(롬6:23) 의를 위해 받는 고난(마5:10)의 결과는 영광(13, 14절)과 천국(마5:10)임을 알아야 한다. 더우기 신자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 앞에 올바른 삶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에까지 머물러야 한다.

14. **㉠**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대해 설명하라(16절).

- ㉠** (1)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지지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본질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단 2회만 사용되었다(행11:26; 26:28).
- (2) 이 말이 생기기 전에는 신자들은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나사렛 사람들’ (행24:5)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다.

- (3) 그러다가 주후 40년경 안디옥의 거주민들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행 11:26) 이때부터 이 호칭이 사용되어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4)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되어진 초기에는 신자들에 대한 멸시와 조소를 담은 호칭이었으나 그 후 신자들이 스스로 공식적인 호칭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다(행 26:28).
- (5) 그 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명칭으로 인해 수많은 박해를 받아 왔지만 스테반이나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고난을 잘 참고 견뎠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 (6)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들릴 수 있어야 한다.

15. **㉠** ‘하나님의 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7절)

- ㉠** (1)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킨다(고전 3:16; 딤후 3:15).
- (2) 한편 예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마 7:21)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와 비슷하게 요 14:2에는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사 10:12; 렘 25:29; 겔 9:6).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 심판의 전조라 할 수 있다. 즉 신자들조차도 거룩과 경건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멸망받을 자들은 당연히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 (4) 따라서 우리의 심판의 시발점(始發點)이 될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고전 13:13) 공동체로 만들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창 1:4, 10, 12, 18, 21, 25, 31) 해야 한다.

16. **㉠**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란 귀절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18절)

- ㉠** (1) 본귀절은 잠언 11:31을 인용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의인’(3:12, 14)은 신자로서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에 반대되는 사람을 말한다(참조, 눅 18:10-14; 롬 3:20-24).
- (2)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신자들이라 해서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12절)을 통과해야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3) 이러한 예로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 역시 의로운 사람(마 21:32; 막 6:20)이었으나 목 베임을 당하는(막 6:27) 고난을 통해 하늘에서 겨우 작은 자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다(마 11:11).
- (4) 이같이 의인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쉽지 않은 것인데 하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에게 있어서의 약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마 19:24).

17. **㉠** 베드로는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가? (19절)

- ㉠** (1)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라고 당부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부탁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티데미>로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 (3)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시 31:5; 눅 23:46)라고 하였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4) 이러한 베드로의 강한 권고는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순교까지 각오하는 태도를 각성시켜 주는 것이다.
- (5) 우리들도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드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예 4:16)라고 한 에스더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연구자료

### 기독교의 물질관

성경이 부정 축재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왕하5:20-27; 약5:1-5)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나 부(當), 재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 등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취득하며 근검 절약을 통하여 남보다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원리이기도 하다(참조, 잠6:6, 11; 마25:26).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곧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말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이 세상의 삼라 만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참조, 학2:8).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창1:1-31). 그런데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좇아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맡기셨다(참조, 창1:26-30).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데 곧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다(마25:31-46; 약2:14-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거나 축적하기에 급급한데 이는 잘못된 태도이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사치나 낭비를 일삼는 것은 정녕 하나님의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횡령, 남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아님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때가 되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다(참조, 벰후3:6, 7, 10, 12). 그러니 우리는 재물을 축적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찌기 예수께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리이까’라고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대답하셨다(마19:16-22). 이 같은 예수의 명령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동일한 명령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딤후전6:18)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다(참조, 9-11절).

## 제 5 장 마지막 권고와 작별 인사

단락구분 1-4 장로들에게 목양(牧羊)에 대해 권고하다 / 5-7 장로를 향한 젊은이의 순종 / 8-9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 10-11 불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 12-14 기원과 작별 인사

-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 3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 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 9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이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이니라
-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 11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 13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사도 베드로는 본장을 통해서 특별한 지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장로들에게 목양(牧羊)의 원리에 대해 권고하고(1-4절)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함을(5절) 일깨워 주고 있다.
- (2)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난에 대처할 신자들의 태도(8-11절)에 대한 결론적 권면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함으로써 본서신을 끝내고 있다(12-14절).
- (3)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시 55:22과 잠 16:3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 주시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7절)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권면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활력소를 제시해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빌 4:6)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빌 4:7; 딤후전 6:12).

### 2. ㉠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1절)

- ㉠ (1) 먼저 그는 자신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로서의 고자세가 아니라 같은 장로의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 (2)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

격한 자(행 1:8;5:32;10:39)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행 22:10; 히 12:1; 계 2:13)임을 가리킨다.

- (3) 또한 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기에 앞으로 올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딤후 2:11-13).
-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겸손한 자세로 말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4:16) 베드로처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신앙 생활의 출발점이고 관건이 된다(참조, 마16:16).

3. ㉠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로'는 어떤 직책인가? (1-4절)

- ㉡ (1) '장로'는 교회의 원로 지도자에 대한 호칭으로서 단지 나이가 많아서 '장로'(長老)라기 보다는 유능하고 노련한 지도자를 가리켜 그렇게 불렀다(참조, 창10:21;레4:15;욥32:4). 그러나 이 제도가 초대 교회에까지 전통으로 전해지면서 그 직능이 다양해지게 되었다. 즉 신약 시대의 장로는 단순히 연장자란 의미보다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정착하게 되었다.
- (2) 그런데 이러한 '장로'는 그 당시의 '감독'(딤후 3:1; 딤후 1:7)과 자격(딤후 3:2을 딤후 1:6과 비교) 및 직책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진다.
- (3) 그러나 감독은 교회 전반에 관계하는, 초대 교회 때부터 생겨난 직책이며(살전 5:12; 딤후 3:2;5:17; 딤후 1:8; 약 5:14) 반면, 장로는 유대교에서부터 전수된 것으로 주로 직능적인 측면보다는 신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직분이며 어떤 특수한 일을 주관하는(롬 11:8; 살전 5:12; 딤후 5:17; 히 13:7, 17, 24; 약 5:14) 직분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 (4) 이와 같이 장로는 교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 교회의 관리, 행정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교육(딤후 5:17), 교훈과 권면(롬 11:8; 살전 5:12), 영적 지도자(히 13:7, 17, 24; 약 5:14) 등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이다.
- (5) 그런데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장로'를 다른 명예직처럼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가 성행하고 있는데 본장을 통한 베드로의 권고와 같이 장로는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양 무리를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직분임을 알아야겠다.

4. ㉡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로의 임무는 무엇인가? (2-4절)

- ㉢ (1) 첫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양 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해야 한다(참조, 요 21:16).
- (2) 둘째, 양을 칠 때 부정함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2절) 양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딤후 1:7).
- (3) 셋째, 장로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3절; 빌 3:17; 살후 3:9).
- (4) 하나님의 양 떼를 위탁받은 장로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양을 먹인다면 '목자장'(牧者長)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4절)을 얻게 된다(참조, 1:4; 고전 9:25; 약 1:12).

5. ㉡ '양 무리의 본이 된' 장로들이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4절)

- ㉣ (1)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 (2) 여기에서 '면류관'은 고대 헬라의 운동 경기장에서 승자의 머리에 씌여 주었던 월계수로 만든 관을 가리킨다(참조, 고전 9:25).
- (3) 그런데 이러한 '면류관'은 한갓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영광(1:24; 사 40:8; 약 1:10, 11)이기에 곧 시들어 버리고 만다.
- (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급으로 씌워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빛나

는 ‘영광의 면류관’ 곧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인 것이다(딤후 4:8; 약 1:12; 계 2:10; 3:10; 4:4).

6. **㉠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5-9절)**

- ㉠** (1) 첫째,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한다(5절)고 했는데 이는 장로들이 교회의 행정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이다(히 13:7, 17; 약 5:14).
- (2) 둘째,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다(5절; 마 20:26, 27; 약 4:6, 10).
- (3) 셋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고 했는데(7절; 시 37:5; 55:22)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 삶에서 모든 염려를 떨쳐 버릴 수가 있다.
- (4) 넷째, 깨어 근신하며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물리치라고 했는데(8, 9절; 1:13; 마 24:42; 엡 4:27; 6:11)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마귀에게(8절)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인간의 지·정·의 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헛점이 발견되는 그곳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계략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
- (5) 이러한 권고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히 심리적, 영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많은 젊은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므로 베드로의 권고를 마음에 새겨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7. **㉠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사자처럼 울부짖고 다니는 대적(對敵)은 누구인가? (8절)**

- ㉠** (1) 베드로는 신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귀’의 행위를 먹이를 찾아다니는 배고픈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
- (2) 여기에서 ‘마귀’ (헬, 디아블로스)는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로서(대상 21:1; 욥 2:1) 중상자(中傷者)라는 의미를 가진다.
- (3) 이러한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요 14:30), ‘이 세상의 신’ (고후 4:4),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엡 2:2)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 (4) 또한 마귀는 자기에게 사로잡힌 부하들(엡 2:2; 딤후 2:25, 26)을 통하여 신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연합한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마 4:1-11; 막 1:12; 눅 4:2-14)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귀와 대적해야 한다(9절; 약 4:7).

8. **㉠ 하나님은 고난받은 신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10절)**

- ㉠** (1) 먼저 ‘은전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조정하며 수선한다는 말로(마 4:21) 여기서는 박해로 인해 상처받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심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했는데 이는 집을 세우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같이(마 7:25)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신앙의 터전을 견고케 해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4)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심으로 신자들은 마귀로 인해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 고후 12:9; 빌 4:13).

9. **㉠ 베드로는 권고를 끝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11절)**

- ㉠** (1)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란 말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있다.

- (2) 이 귀절은 4:11과 비슷한 내용의 송영(頌榮)으로서 이제까지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 (3) 한편 이러한 형식의 송영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 온 전통적인 송영 중에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마 5:16)과 바울 서신(롬 11:36; 16:27; 갈 1:5; 딤후 4:18) 및 공동 서신(히 13:21; 벧전 2:12; 벧후 3:18), 묵시 문학(계 1:6; 5:13; 7:10)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 또한 송영 뒤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기원의 표현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성을 그대로 믿는다는 신뢰와 맹세(盟誓)의 표현을 가리킨다.
- (5)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 찬송드리거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맹세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말로 끝을 맺어야 한다.

10. ㉠ ‘실루아노’는 본서신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12절)

- ㉠ (1) 베드로는 본절에서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간주하는 실루아노’라고 말하고 있다.
- (2) 또한 그는 본절의 ‘실루아노로 말미암아’라는 귀절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참조, 본서서론 ㉠1)에 근거해 볼 때 그는 본서신의 대필자임을 알 수 있다.
- (3) 그의 이름은 ‘실라’ (행 15:22; 16:25) 혹은 ‘실루아노’ (살전 1:1; 살후 1:1)라고 불리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행 15-18장) 고린도에서 전도하기도 했다(고후 1:19).

11. ㉠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13절)

- ㉠ (1) 베드로는 마가를 일컬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다.
- (2) 여기에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의 친아들이 마가라는 뜻이 아니고 마치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로 여겨졌던 것처럼(딤후 1:2, 8) 영적인 아들을 뜻하는 것이다.
- (3) 그는 바나바의 조카(골 4:10, 11)로서 본명은 ‘요한 마가’ (행 12:12, 25)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동행했던 적이 있다.
- (4) 그러나 1차 여행 도중 후퇴했다는 이유로 바울은 2차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행 13:5, 13; 15:37) 후일 다시 바울을 따랐으며 로마에서 투옥될 때도 함께 있었다(골 4:10, 12; 몬 1:24).
- (5) 이러한 마가와 베드로의 개인적 관계는 성경 안에서 달리 찾아 볼 데는 없지만 본절을 통해 ‘내 아들’이라 한 것을 볼 때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12. ㉠ 베드로는 신자들간에 어떻게 문안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14절)

- ㉠ (1)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 (2) 이 ‘입맞춤’은 초대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행해졌던 인사법(눅 7:45)으로서 특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중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롬 16:16; 고전 16:20; 고후 13:12).
- (3) 이러한 입맞춤은 처음에는 남녀의 구별 없이 형제애의 한 표현으로 행해졌으나 A. D. 3세기부터는 남녀로 각각 구분되어 시행되었으며 결국은 너무 남용한 탓으로 오래 계속되지 않고 폐지되었다.
- (4) 교련데 이러한 풍습은 시대와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형식으로 인사하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사실이 못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에서 출발한 인사가 사라져 버린 공동체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